

# 10월 월간보고서

방글라데시 12기 발로본두  
신유식, 임병준, 송누리, 정은혜

일	년	화	수	목	금	토
			1 Planning Youth meeting	2 다하파라NFPE 두르가푸자 축제 방문	3 Off day	4 Report  두르가푸자축제 슈보단원과만남
5 총장님 집 방문 Youth club meeting	6 <b>병준생일</b>  휴 이둘아자르참여	7  가 보고서작성 배드민턴장 청소	8	9 다하파라NFPE	10 Off day	11 Report
12 YWCA 방문	13 다하파라NFPE	14 다하파라NFPE 현지총장님미팅	15 Planning  캠	16  폐 다하파라NFPE Youth meeuing	17  인 준	18 Report  비 학교방문
19 <b>빈곤퇴치캠페인</b>	20  비 리 다하파라NFPE	21  시 리 다하파라NFPE	22 <b>누리생일</b>  홍 셀라이 CLUB	23  보 영 다하파라NFPE	24 Off day  상 제	25 Report  작 스포츠 CLUB
26 뮤직CLUB 코리안CLASS	27 다하파라NFPE 사물함정리 캠페인정리	28 다하파라NFPE 캠페인정리	29 마이맨싱	30 다하파라NFPE	31	

## 1. 활동

(1) 다하파라 NFPE

(2) Youth Club

(3) 빈곤 퇴치 캠페인

## 다하파라 NFPE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월, 화, 목) 다하파라 NFPE 수업을 진행 한다.

### \* 영어수업

Class 1과 Class 2로 나누어 한국에서 준비 해 온 플래시 자료로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Class 1은 알파벳과 그 날 배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르치고, Class 2는 주제를 정해 주제와 관련된 영어단어를 가르친다. 그 날 배운 단어는 챗트와 영상으로 복습하고 있다.

### \* 영어 애니메이션

별로로 영어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 하고 있다. 영어 애니메이션을 보여 주고, 그 속에 나오는 기초적인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 수업이 진행 되는 중이다.



다하파라  
NFPE

\* 수학 수업

삼각형, 사각형, 원을 배우고 도형과 친숙해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칠교놀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개념을 이해시키고 있다.

\* 체육 수업

림보나 땅따먹기, 얼음 땡과 같은 여러 놀이를 통한 수업이 진행 되고 있다.

\* 예능 수업

한국에서 준비해 온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미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음악과 미술을 함께 할 예정이다.



다하파라  
NFPE





## Club 미팅

Club을 진행 하기 전에 Youth들과 전체 미팅을 가져서 어떤 Club을 할 지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특히 셀라이 Club에 대한 여자 Youth들의 반응이 컸다. 또, 한국어 class를 제안 받았다. Youth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언어의 문제로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더 많은 의견을 교환 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 Club 활동 일정

5개의 클럽을 진행 하기로 하였다.

- 일 PM 03:30~04:30 Music Club  
04:30~05:00 Korean Class
- 수 PM 04:00~05:00 Selai Club (바느질)
- 금 AM 07:00~08:00 Cleaning Club (1,3주)
- 토 PM 03:00~05:30 Sport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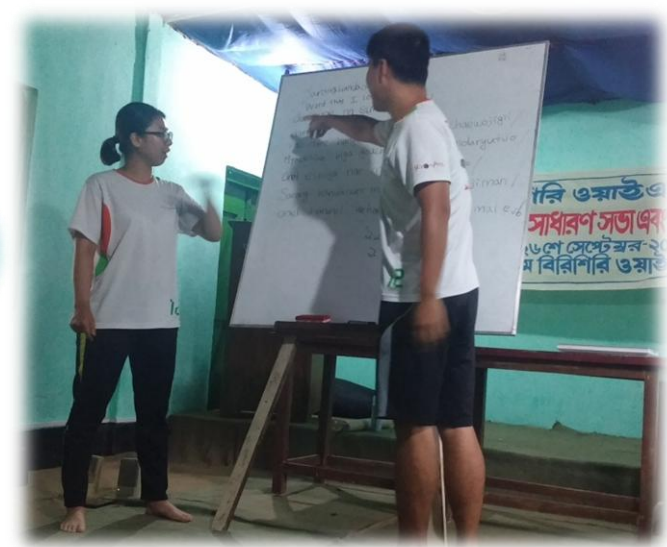
## Korean Class

Youth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평소에도 계속 한국어를 물어 보고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화를 중심으로 한 수업을 준비 하였다. 단원 4명이 조를 이루어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다.



## Music Club

한국 노래와 방글라 노래, 그리고 가요 노래를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평소에도 Youth들과 서로의 노래를 공유하고 있지만, 더 많은 Youth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다.



## Selai Club

여자 Youth들을 YMCA로 모이기 위해서 시작한 클럽이다. 첫 시간에 한국에서 가져온 비즈로 팔찌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해 온 인형 만들기를 하고 Youth들에게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자수를 배울 예정이다.





## Sport Club

매일 저녁 YMCA에서 배드민턴과 축구를 하는데, 여자 Youth들이 방해가 될까 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Sport Club을 통해 여자 Youth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보려고 한다. 지난 시간에는 배드민턴을 복식으로 하고, 방글라데시의 전통 게임을 배우서 함께 하였다.



## 2. 빈곤 퇴치 캠페인

캠페인  
주제 선정

Youth들과 비리시리의 문제점과 우리가 생각해 온 주제를 공유



‘알코올’ 주제 선정



현지 총장님과의 대화로 ‘알코올’을 직접적으로 다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하기로 하고 캠페인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고민.



현지어가 부족한 우리가 간접적 방법을 통해 의도를 잘 전달 할 수 있을까 하는 한국에서의 피드백.



캠페인  
주제 선정

여러 주제를 생각하던 중 '서로 다른 종교와 생활에 대한 이해', '안전', '알코올과 담배의 중독'의 주제로 좁혀짐.

'서로 다른 종교와 생활에 대한 이해'는 민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캠페인을 잘못 진행했을 때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됨을 우려.

'알코올과 담배의 중독' 주제를 최종 선정

## 캠페인 준비 과정

주제 선정 후 장소(학교, YMCA내, 빌리지)와 대상(Youth, 지역주민, 학생)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

현지 총장님께서 학교 섭외 (bitaniggaton school - 60명 대상)

어떤 방법으로 전달 할 지 고민

→ 강의식 보다는 여러 부스를 설치해서 함께 호흡하는 장을 만들기로 결정

부스 별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

→ 설명, 퀴즈, 돈의 가치, 서명 총 4개의 부스로 진행

**Youth들과 함께 캠페인 준비**

설명 부스에 들어가는 자료를 수집 → 영어로 번역 → 벵갈어로 번역

판넬 제작 / 선물 제작

돈의 가치 부스에서 전시 할 샘플을 함께 고민

라운아띠 멤버 1명과 Youth 멤버 2명이 함께 한 조를 이루어서 부스 운영을 고민

캠페인  
준비 과정



캠페인  
진행

학교 마당에 4개의 부스를 설치 한 후 각 부스에 맞는 활동을 전개.  
모든 부스에 참여 하고 난 후 'Think before you smoke. Think before you drink'  
라고 적힌 펜을 나누어 주었다.

**설명부스** 술과 담배를 하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전시

모든 부스를 참여하고 오면 문구가 적힌 펜을 나눠줌

**퀴즈부스** 설명부스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퀴즈를 준비

**돈의 가치 부스** 술과 담배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적는 시간을 가짐

**서명 부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함

캠페인이 어땠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캠페인  
진행





캠페인  
진행  
— 인터뷰



핑크셰 / class 10

‘정보 부스에 게시 되어 있던 술과 담배의 나쁜점에 대한 정보  
가 굉장히 좋았다.’

이븐 / class 10

‘이 캠페인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술과 담배의 위험성을 알  
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 3. 생활

## 슈보단원 방문

다카에서 일하고 있는 슈보 단원이 휴가를 맞아 비리시리를 찾아 왔다. 우리도 휴가 기간이어서 슈보 단원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지금까지 먹어 보지 못한 음식들을 많이 사 주고, 우리랑 대화도 많이 나눴다. 활동 기간 중 전 기수를 만나 얘기를 나누니 활동에 대한 생각도 넓어 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 축제

### \* 두르가푸자

힌두교의 주 신 중의 하나인 두르가를 기념하는 축제이다. 어머니 신을 춤과 노래로 섬기는 축제이다. 축제가 끝난 후 진흙으로 구워진 신상들은 주변의 강으로 던진다.



### \* 이둘아자르

이슬람교의 축제로 각 마을에서 부자들이 가축을 잡아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축제이다. 축제에 참여해서 무슬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무슬림 집을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총장님  
댁 방문

현지총장님 댁에 초대를 받았다. 함께 이야기도 하고 전통 음식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 동안, 총장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괜히 어색하기도 하고, 다가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방문 이후 총장님이 편해지고 정말 '다다(삼촌)'가 되었다.





병준, 누리  
생일

10월 달에는 병준 단원과 누리 단원의 생일이 있었다. 생일을 맞아 팀원들이랑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또, Youth들과 생일 파티를 함께 하면서 더 친해졌다. 누리 단원은 Youth와 생일이 같아 함께 파티를 했다.



## 배드민턴장 정비

Winter season이 오면 매일 저녁 배드민턴을 한다. 그래서 Youth들과 함께 배드민턴장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비를 마친 후, Youth들과 즐겁게 배드민턴을 쳤다.



## YWCA 방문

비리시리 지역 여자 Youth들의 활동이 궁금하여 YWCA에 방문을 하였다.

YWCA는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활동으로 교육 활동과 세미나 활동이 있었다. 인권, 자원분배, 2차성징 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다. 또, Anti drug 활동도 하고 있었다. 함께 빈곤퇴치 캠페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쏟상강  
수영

Youth들과 함께 싹상강에서 수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자직원들은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도 잡으며 휴일 날 Youth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마이맨싱 여행

스포츠 클럽을 할 때 여자 Youth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다가 배드민턴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배드민턴 라켓을 사기 위해서 마이맨싱을 가게 되었다.

가기 전에 마이맨싱이 위험하다는 Youth들의 말을 들어서 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했지만 함께 간 Youth들 덕분에 안전하게 다녀 올 수 있었다.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한 후,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건도 사고 환전도 했다.

하루 만에 다녀 와야 해서 많이 피곤 했을 텐데도 끝까지 우리를 챙겨준 루벨과 부르슬리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 4. 우리들의 고민

## 다하파라

### - 아이들과의 관계

은혜 단원이 다하파라 수업을 진행 하면서 아이들과 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눔 때 털어 놓았다. 다하파라 NFPE에서는 에이스로 불리는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모난 행동으로 교사의 관심을 유도 해서 학생을 대하는 게 힘이 든다고 말했다. 팀원들이 '그 아이도 그 중에서 에이스 일 뿐이지, 관심이 필요한 어린아이야. 잘 한다고 칭찬해 주면 금세 모난 행동을 하지 않아.'라고 말을 해 주었다.

이 외에도 다하파라 NFPE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늘 고민하고 있다. 언어의 문제로 아이들과 대화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지도를 하는 것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다하파라  
수업난이도  
- 영어

영어 수업의 경우 분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Class 1은 알파벳을 가르치고 연관된 단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았고, 하루에 6개의 단어를 소화 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단어를 영어로도 모를 뿐 아니라 뱅갈어도 모르고 있어서 영어 수업에서 뱅갈어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래서 영어 수업의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이해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본다. 그리고 영어와 영어애니수업을 ppt와 영상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이라는 생각보다는 영상을 보는것에만 집중을 해서 '영상을 제외하고 그냥 수업만 해야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그렇다면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수업 난이도와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다하파라  
수업난이도  
- 영어애니

영어 애니메이션도 영어 수업과 마찬가지로 Class 1의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시간에는 인사하기와 같은 쉬운 회화를 수업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수업에 흥미 있어 했는데, 영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말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뱅갈어로도 모르는 표현을 설명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또, 단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영어수업과 너무 겹치게 되는 것 같아 시도를 하지 못했다. 또, 수업 방향을 아직도 잡지 못하였다. Class 1, 2 모두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받아 들일 수 있을지 방법이 생각 나지 않아 수업 진행이 너무 힘들다. 영어 애니메이션 수업 자체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

## ICS

영국에서 ICS라는 봉사단체가 비리시리 YMCA로 들어 왔다. 목적은 다르지만, 하는 활동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처음 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다하파라 수업 때 ICS 코디네이터가 우리에게 사전에 말도 하지 않고 수업 참관을 들어 왔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과 대화를 해서 수업을 방해 한 적도 있었다.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며 ICS 팀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었다. 그 이후 대화를 통해 서로의 활동을 이해 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 많이 도와주며 활동을 하고 있다.

클럽활동  
방향성

Youth들과 미팅을 통해 5개의 CLUB을 개설 했고 활동 중에 있다.

- Music Club

서로의 노래를 알려 주고 함께 부르기를 기획했는데 노래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Class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팀원들끼리 의견이 나누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가사를 먼저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Class가 아니라 Club인데 분위기가 Class처럼 되어버려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부르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도 있었다.

- Korean Class

Youth들의 요청으로 개설된 클럽이다. 그런데 Youth들의 한국어 수준이 다 달랐다. 라온아띠를 처음부터 만난 Youth들은 간단한 회화는 아는 수준이었고, 처음 오는 Youth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상황별로 주제를 정해서 모둠을 나눠서 알려주는 방향으로 정했다.

클럽활동  
방향성

- Cleaning Club

Club을 개설하고 아직 Cleaning은 진행하지 않았다.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전 기수들이 꾸준히 클리닝 활동을 했지만 우리가 떠난 시점부터 오기 직전까지는 자체적인 클리닝 활동이 없다. 어떻게 하면 Cleaning 활동을 Youth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했다. 그리고 Cleaning Club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 곳에서는 왜 쓰레기통을 써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그 인식 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이유를 우리도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쓰레기를 주워도 지금 비리시리에서는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 그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클럽활동  
방향성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에 대한 해답은 찾았다. 시장에서 쌀과 같은 곡식을 오븐 해두고 팔고 있는데 바로 옆에 썩은 물이 고여 있고 그 곳에 쓰레기가 쌓여 벌레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 벌레들이 음식물 여기 저기 옮겨 다니니까 음식이 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각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Youth들과 소통을 하면서 단지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 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 되고 있다.

통역

Youth들과 미팅을 갖게 된 날, 우리가 미리 코디네이터에게 계획을 설명 하지 못했다.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깐, 코디네이터가 통역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당연히 코디네이터의 의견도 반영 되어야 하겠지만, 통역 할 때 우리가 모르게 덧붙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전에 코디네이터와의 소통으로 충분히 내용을 합의하고 미팅을 진행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

Youth들과  
의 관계 고민

#1.

Youth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 지면서 대화 할 시간도 늘어났다. 안부를 묻는 수준의 대화가 아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언어의 한계로 대화가 되지 않았다.

Youth들은 우리와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영어를 하지 못하는 단원들에게는 이해를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또, 현지어를 배우려고 해도 모든 설명이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어를 배우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어린 Youth들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 그들과는 현지어로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의 현지어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해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Youth들과  
의 관계 고민

#2.

병준 단원의 생일을 준비하면서 Youth들과 돈을 모아서 케익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축제 기간이라 케익을 준비할 수 없어서 없던 일이 되긴 하였지만, 그 때 우리는 Youth들에게 돈을 걷는다는 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Youth들이 파티를 준비해 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진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구 생일을 축하 하는 마음에서 그들도 함께 하고 싶었을텐데, 우리는 괜히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Youth들과  
의 관계 고민

#3.

클럽 준비물을 사러 Youth들과 함께 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리샤를 타야 하는데, 항상 우리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우리 개인 물품을 사러 가는 거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겠지만, 함께 활동할 준비물을 사러 간 건데 계속 해서 우리가 비용을 내야 하니 부담이 되었다. 나눔을 통해, 함께 하는 활동이지만 우리가 있어서 하는 활동이고, 우리가 뭘 사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가 준 거라 고마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체감상 우리 보다 훨씬 부담이 될 거라서 우리가 리샤비를 Youth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 5. 개인 소감

신유식  
(Shapon)

10월은 관계 형성의 달이었던 것 같다. 사람들과 만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감사하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 빈곤퇴치캠페인의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할 수 있었을까. 같이 웃어주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외롭지 않다.



빈곤퇴치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과정을 Youth들과 함께 했다. Youth들이 같이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기를 바랐었다. 캠페인이 끝난 후 한 Youth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여학교에서도 진행해야한다고. 여학생들은 미래에 엄마가 될 것이고 아이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교육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느꼈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있음을.

임병준  
(Ananta)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이 많았다. 사실 나는 우리 팀원들과의 미팅 중에도 늘 딴짓하면서 듣고, Youth 멤버들과의 미팅 중에도 진지한 면을 보이지 않았었다. 그래서 Youth들과 멤버들 모두들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예전 진주에서 올 때, 총장님께서 내게 겸손함을 배우오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났다. 그때는 총장님께서 왜 겸손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만큼 자만하고, 거슬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를 좀 더 내려놓으니 팀원들과 Youth들이 그 빈 자리를 메워줬다. 신이 참 모순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는 주위의 사람들이 지치고 떠나가더니, 오히려 내가 낮아지려고 하자 사람들이 세워줬다. 이렇게 하나 둘 씩 인생을 배우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스트 어머니의 말씀을 적고 싶다.

“오늘도 신이 선물로 주신 날이야. 이 하루를 감사하며 열심히 보내야 해.”





송누리  
(Shanta)

이번 달은 다하파라 고민이 많았다. 진주에서 다하파라 기획안을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기획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직접 그 기획안을 실행한 결과 나는 즐겁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았다. 아이들과 하고 싶은 활동은 많지만 그 활동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 대상에 맞게 풀어나야 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했던 활동이라도 대상이 다른데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나의 큰 오차였던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활동을 하면서 방법을 찾고 싶고, 아이들과 즐겁고 신나게 활동을 하고 싶다. 또한 활동을 할 때는 대상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언어가 안 된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욕구는 파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만 하는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항상 반성한다.

송누리  
(Shanta)

비리시리에서의 생활은 '행복'이었다. 밤마다 Youth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것도 행복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멋진 풍경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잘 하지 못하는 영어와 뱅갈어로 말해도 항상 웃어 주고 들어주셔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배드민턴을 못 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해주셔서 행복하다. Youth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반성을 정말 많이 했다. Youth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그들과 나누고 싶은 대화들이 많았다. 그들의 고민도 취미도 꿈도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언어실력은 나의 욕구를 따라오지 못했고 내가 왜 여기 오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 후회한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살겠다고 왔으면서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고 활동만을 내가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고 왔을까?' 내가 너무 자만심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한다. 또한 Youth들과 관계형성도 하지 않은 채 일만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자만한 내 모습을 반성한다. 그렇다면 나는 Youth들과 어떻게 관계형성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

## 송누리 (Shanta)

나도 Youth들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달에 Youth들에게 '관심', '진정성'을 배웠다. 내가 표정이 좋지 않은 날. Youth가 와서 '너 오늘 안 좋지?', '오늘 너 달라' 이렇게 말을 해줬다. 나는 그들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짜증을 내거나 표현을 하지 않았다. 평소와 비슷하게 함께 놀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Youth에게 너무 고마웠고 배웠다.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찰을 넘어서서 질문을 해주고 위로를 해준다는 것, 나는 한국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도 질문을 잘 하지 않았다. 내 모습을 반성했고 그 Youth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일을 맞이하였다. 팀원들과 Youth들이 나와 프로시드의 생일로 인해서 계속 준비하고 당일 날 정말 많은 행복을 주었다. 생일을 챙겨줘서 단지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 되지 않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그들에게서 '진정성'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가고 있다.

정은혜  
(borsha)

시간은 참 빠르다. 10월에는 행사도 많았고, 팀원들의 생일도 있어서 Youth들과 함께 한 시간이 참 많았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 고민을 참 많이 했다. 언어로 인한 스트레스도 첫 달에 비해 심해졌다. 친해지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알아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 참 많이 답답했다. 돌아보니 언어의 문제라기보다 내 마음의 문제였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스스로 많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내가 소통하려고 마음먹으니 눈빛으로 행동으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었다.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많이 자유로워졌다. 한국어로 말해도 진심은 통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정은혜  
(borsha)

그리고 이곳에서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생기면 나에게 가져다 주고, 늘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주고, 나에게 다가와 눈 맞춰준다. 말도 잘 못하는 나랑 대화하는 걸 즐거워 해 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감정을 많이 느꼈다. 또, 누군가에게 나를 친구라고 소개해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처음 알았다. 아침 산책을 하던 중 누군가가 Youth에게 우리에게 대해서 묻는 일이 있었다. 그 때, 한국에서 온 봉사자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해 준 내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

나와 많이 친했던 친구가 일이 있어 다카로 갔다. 크리스마스 때는 돌아온다고 했으니 다시 볼 수 있는데도 많이 슬펐다. 그 때 다시 깨달았다. 이곳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헛되이 보낸 시간에 슬퍼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관계 맺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

멋다한 사진 이야기 \*

























































Donnobat \*